

디자인산업 고용현황 진단

목차

I. 서론

II. 디자인산업 고용현황

III. 디자인산업 고용악화 원인분석

IV. 시사점 및 제언

부록. 조사결과보고서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문제만큼은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의 실업자는 3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자인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6년 93,905명에 달하던 디자이너 고용규모가 2008년에는 54,587명으로 무려 39,318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41.9%만큼 감소하였다. 일반기업체 디자이너는 2006년 86,462명에서 2008년 46,479명으로 줄었다. 반면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는 7,443명에서 8,108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006년 디자인전문회사에 근무했던 디자이너 중 68.2%가 2008년에도 계속 근무를 한 반면, 일반기업체 디자이너는 28%만이 2008년까지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에 비해 2008년도에 전문회사 디자이너는 늘어나고 일반기업체 디자이너수는 줄어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보다 명확한 상황조사를 위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2008년도 상황을 살펴보았다. 경상수지, 기업실사지수, 산업생산, 소비자 판매, 제조업 가동률, 경상수지, 자본수지 모두 2006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외채무나 재고순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둘째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용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런 회복세를 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는 작년엔 89만명이지만 여기에 취업준비생 59만명, 18시간 미만 취업자 96만명 등을 합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34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실업급여수급자가 35만 명에 달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를 맞아 최근 정부는 일자리 유·창출 및 일자리 공유를 위한 잡쉐어링(job 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노력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눈에 띄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환경과 고용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 동안 디자인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정부의 육성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경기가 좋지 않았고 환율 등 각종 악재에 발목이 잡힌 결과,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산업 자체가 워낙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불경기에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6년 93,905명에 달하던 디자이너 고용규모가 2008년에는 54,587명으로 무려 39,318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41.9%만큼 감소하였다.

급변하는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산업의 노동력 상태이행을 즉시적으로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산업 노동시장 구조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디자인산업 고용악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도 시점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직업이동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를 분석하여 2006년도와 2008년도에 실제로 경제상황이 어땠는지를 분석하여 직업이동 실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디자인산업 고용현황

디자인산업에 속한 업체는 2008년 22,684개로 2006년 23,833개에 비해 1,149개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8%만큼 감소하였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중에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은 2008년 20,191개로 2006년 21,580개에 비해 1,389개가 줄어 업체수는 6.4%만큼 감소하였다. 디자인전문회사는 2008년 2,493개로 2006년 2,253개에 비해 오히려 240개가 늘어 업체수는 10.7%만큼 증가하였다.

<표 II-1> 디자인산업 업체 수 추정1)

(단위: 개)

구분		연도별 추이	
		2006년	2008년
디자인관련 업체 수 1)		23,833	22,684
일반 업체	디자인 활용 업체 수 2)	21,580	20,191
	일반기업체 수 3)	157,515	166,065
	디자인 활용 업체 비율(%)	13.7	12.2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회사 수	2,253	2,493

1) 디자인관련 업체 수: 디자인 활용 업체 수 + 전문디자인업체 수

2) 디자인 활용 업체 수: $\sum \sum (\text{일반기업체 수} \times \text{디자인 활용 업체 비율(조사결과)})$

3) 2006년: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이고,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업체
2008년: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이고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업체

전체 디자이너 고용규모는 2008년 54,587명으로 2006년 93,905명에 비해 39,318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41.9%만큼 감소하였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일반기업체의 디자이너 고용규모는 2008년 46,479명으로 2006년 86,462명에 비해 39,983명이 줄어 46.3%만큼 감소하였다.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 고용규모는 2008년 8,108명으로 2006년 7,443명에 비해 오히려 665명이 늘어 8.94%만큼 증가하였다.

1)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200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표 II-2> 디자이너 고용 규모 추정²⁾

	2006년	2008년
디자이너 고용 규모	93,905명	54,587명
- 일반기업체 고용 규모	86,462명	46,479명
. 제조업	50,114명	22,015명
. 건설업	9,612명	4,415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8,867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149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3명
. 사업서비스업	26,736명	
- 디자인전문회사 고용 규모	7,443명	8,108명

일반기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는 2008년 3.7명으로 2006년 5.7명에 비해 2.0명이 줄어 35.1%만큼 감소하였다.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이너 수는 2008년 3.3명으로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II-3> 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³⁾

구분	2006년	2008년
- 일반기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	5.7명	3.7명
. 제조업	4.8명	3.3명
. 건설업	5.2명	3.7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4.3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명
. 사업서비스업	7.4명	
- 디자인전문회사 평균 디자이너 수	3.3명	3.3명

III. 디자인산업 고용악화 원인분석

1. 디자이너 추적 조사

고용유지자를 대상으로 고용업체 형태에 대해 추이 비교한 결과, 2006년도에 디자인전문회사에서 일했던 디자이너 중 68.2%는 여전히 디자인전문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반회사로의 이직은 31.8%에 그쳤다. 2006년도에 일반회사에서 일했던 디자이너 중 28%만이 여전히 일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무려 72.0%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2008년도에 디자인전문회사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의 2010년 고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디자인전문회사에 86.7%가 머물러 있었으며 일반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반면에 2008년도에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 중 66.6%가 디자인전문회사로 이직했으며, 일반회사에 그대로 고용된 경우는 33.3%에 불과했다.

<표 III-1> 디자이너 이직 경로

2006년 고용업체	2008년 고용업체	%	2008년 고용업체	2010년 고용업체	%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회사	68.2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회사	86.7
	일반 회사	31.8		일반 회사	13.3
	전체	100.0		전체	100.0
일반 회사	디자인전문회사	72.0	일반 회사	디자인전문회사	66.6
	일반 회사	28.0		일반 회사	33.3
	전체	100.0		전체	100.0

자료출처: 디자이너 고용현황 조사 보고서. KIDP(2010)

2008년도에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일반기업의 경우 내부 디자이너를 해고하고 아웃소싱 위주로 디자인업무를 상당부분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실업자로 전락했거나, 또는 디자인전문회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200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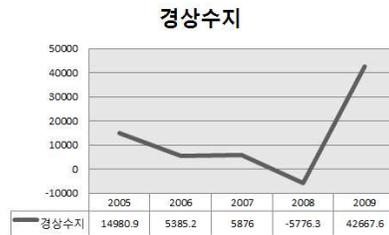
3)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200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이는 2006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디자이너 고용 수가 감소했지만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665명이 늘어난 8,108명의 디자이너가 고용된 것을 보더라도 그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특히 일반기업체 중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보면 2006년 50,114명에 이르던 디자이너가 22,015명으로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상황 분석

경상수지, 기업실사지수(BSI), 산업생산, 소비재 판매, 제조업 가동률, 경상수지, 자본수지 모두 2006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2008년도에 안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외채무나 재고순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황 악화가 사실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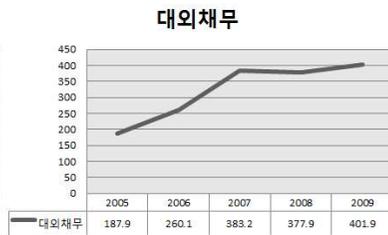
<그림 III-1> 경상수지 (단위:백만달러)



주: 원화환율은 원/달러이고 각 연도별 12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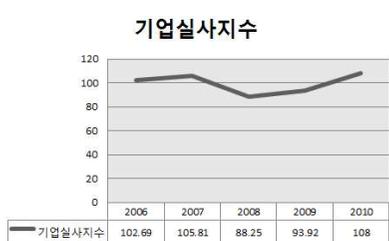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2> 대외채무 (단위: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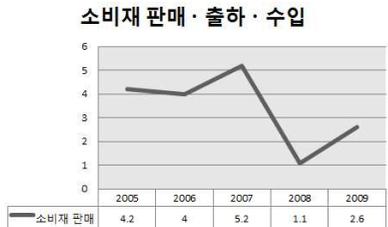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3> 기업경기지수(BSI)



주: IT경기 데이터는 한국은행에서 지연발표

<그림 III-4> 소비재 판매·출하·수입 (단위:%)



주: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5> 재벌·산업형태별·규모별 산업생산 (단위:%)



주: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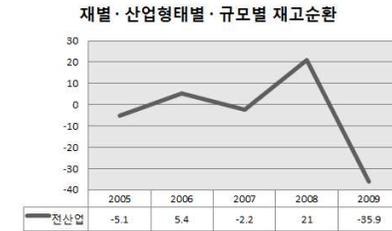
<그림 III-6> 제조업 산업생산 (단위:%)



주: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그림 III-7> 재벌·산업형태별·규모별 재고순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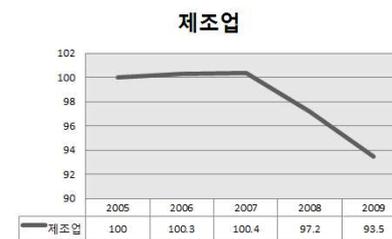


주: 재고순환지표 = 출하의 전년동월비 - 재고의 전년동월비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림 III-9> 제조업 가동률 지수 (단위:2005=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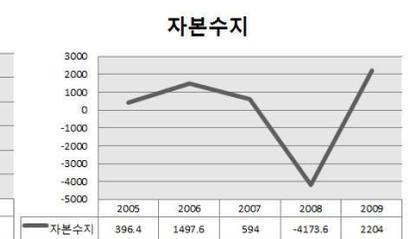
<그림 III-8> 업종별 재고순환 (단위:%)



주: 재고순환지표 = 출하의 전년동월비 - 재고의 전년동월비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림 III-10> 자본수지 (단위: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IV.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8년도에 디자인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2006년에 비해 2008년에는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됐으며, 그 결과 일반기업의 디자이너 감소가 크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용은 8.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디자이너 고용이 감소한 상황에서 디자인전문회사가 일종의 고용 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전문회사 출신이 일반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일반기업 출신이 디자인전문회사로 활발하게 이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 고용불안의 핵심에는 일반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된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기업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디자인부서를 없애고 이를 아웃소싱으로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결론을 말하자. 이러한 고용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디자이너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기업에서 다른 직종과 달리 디자이너의 경우 상당수 인력이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디자인전문회사 창업과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일반기업들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를 외부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디자인업무가 그러한데, 이들이 해고되더라도 디자인전문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일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전문기술 전수 및 기술력 육성 지원을 통하여 일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더불어 넘쳐나는 실직자들이 장기 실직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취업 알선,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고용창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디자이너 고용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2010년 5월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모집단	디자이너
표본수	400명(디자인DB, 디자이너잡 회원)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조사도구	구조화된 웹 설문(structured web questionnaire)
조사일시	2010년 4월 20일(화) ~ 5월 3일(월)

2. 조사 내용

디자이너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 경력 - 디자인 분야
취업 현황 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용 상태 - 현재 고용 업체 형태 - 2008년 고용 상태 - 2008년 고용 업체 형태 - 2006년 고용 상태 - 2006년 고용 업체 형태

3.응답자 특성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
■ 전 체 ■		(400)	100.0
☒ 디자이너 경력 ☒	1 년 이 하	(175)	43.8
	2 ~ 3 년	(101)	25.3
	4 ~ 5 년	(51)	12.8
	6 년 이 상	(61)	15.3
	무 응 답	(12)	3.0
☒ 근무디자인 분야 ☒	제 품 디 자 인	(58)	14.5
	시 각 디 자 인	(187)	46.8
	디지털미디어디자인	(70)	17.5
	환 경 디 자 인	(44)	11.0
	패 션 디 자 인	(34)	8.5
	기 타 디 자 인	(7)	1.8
☒ 현재 고용 상태 ☒	정 규 직 디 자 이 너	(195)	48.8
	비정규직디자이너	(51)	12.8
	프리랜서디자이너	(40)	10.0
	디자인관련업체대표	(5)	1.3
	디 자 이 너 외 업 무	(14)	3.5
	학 생	(18)	4.5
	무직/취업 준비 중	(77)	19.3
☒ 2008년 고용상태 ☒	정 규 직 디 자 이 너	(160)	40.0
	비정규직디자이너	(59)	14.8
	프리랜서디자이너	(31)	7.8
	디자인관련업체대표	(4)	1.0
	디 자 이 너 외 업 무	(19)	4.8
	학 생	(96)	24.0
	무직/취업 준비 중	(31)	7.8
☒ 2006년 고용상태 ☒	정 규 직 디 자 이 너	(101)	25.3
	비정규직디자이너	(22)	5.5
	프리랜서디자이너	(17)	4.3
	디자인관련업체대표	(4)	1.0
	디 자 이 너 외 업 무	(21)	5.3
	학 생	(203)	50.8
	무직/취업 준비 중	(25)	6.3
	무 응 답	(7)	1.8

결 과 요 약

제2장

결과 요약

1. 디자이너 고용 유지

2008년 고용현황	2008년 고용현황	사례수	%	2008년 고용현황	2010년 고용현황	사례수	%
정규직/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79	68.9	정규직/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131	60.9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15	12.7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24	11.2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11	9.3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12	5.6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0	0.0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1	0.5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4	3.4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8	3.7
	무직/취업 준비 중	9	7.6		무직/취업 준비 중	39	18.1
	전체	118	100.0		전체	215	100.0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73	74.5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114	72.2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3	3.1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4	2.5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11	11.2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9	5.7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0	0.0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1	0.6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4	4.1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5	3.2
	무직/취업 준비 중	7	7.1		무직/취업 준비 중	25	15.8
	전체	98	100.0		전체	158	100.0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6	30.0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17	29.8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12	60.0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20	35.1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0	0.0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3	5.3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0	0.0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3	5.3
	무직/취업 준비 중	2	10.0		무직/취업 준비 중	14	24.6
	전체	20	100.0		전체	57	100.0

- 2006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디자이너 고용자 중, 2008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디자이너 고용자 비율은 79.6%(정규직:66.9%, 비정규직:12.7%) 이었고, 2008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디자이너 고용자 중, 2010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디자이너 고용자 비율은 72.1%로(정규직: 60.9%, 비정규직:11.2%) 과거 대비 디자이너 고용 유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정규직의 감소폭이 컸음.

II. 신규 디자이너 유입

2008년 고용현황	2008년 고용현황	사례수	%	2008년 고용현황	2010년 고용현황	사례수	%
학생/취업준비중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67	48.9	학생/취업준비중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53	46.9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36	26.3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21	18.6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9	6.6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7	6.2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1	0.7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0	0.0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7	5.1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2	1.8
	무직/취업 준비 중	17	12.4		무직/취업 준비 중	30	26.5
	전체	137	100.0		전체	113	100.0
학생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59	51.8	학생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36	43.9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30	26.3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18	22.0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8	7.0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2	2.4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1	0.9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0	0.0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6	5.3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2	2.4
	무직/취업 준비 중	10	8.8		무직/취업 준비 중	24	29.3
	전체	114	100.0		전체	82	100.0
취업준비중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8	34.8	취업준비중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17	54.8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6	26.1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	3	9.7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1	4.3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5	16.1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1	4.3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0	0.0
	무직/취업 준비 중	7	30.4		무직/취업 준비 중	6	19.4
	전체	23	100.0		전체	31	100.0

- 2006년 디자이너 관련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이었던 인력 중 2008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고용자 비율은 75.2%(정규직:48.9%, 비정규직:26.3%) 였고, 2008년 디자이너 관련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이었던 인력 중 2010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고용자 비율은 65.5%(정규직:46.9%, 비정규직:18.6%) 로 과거 대비 신규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생 고용 비율이 크게 감소(78.1%→65.9%)하였음.

III. 고용업체 형태 추이

2006년 고용업체	2008년 고용업체	사례수	%	2008년 고용업체	2010년 고용업체	사례수	%
전문 디자인 회사	전문 디자인 회사	30	68.2	전문 디자인 회사	전문 디자인 회사	52	86.7
	일반 회사	14	31.8		일반 회사	8	13.3
	전체	44	100.0		전체	60	100.0
일반 회사	전문 디자인 회사	36	72.0	일반 회사	전문 디자인 회사	60	66.6
	일반 회사	14	28.0		일반 회사	30	33.3
	전체	50	100.0		전체	90	100.0

- 고용 유지자를 대상으로 고용업체 형태에 대해 추이 비교한 결과,
2006년 전문 디자인 회사 취업자 중, 2008년 일반회사로 이직한 디자이너 비율은 31.8%, 계속 전문 디자인 회사에 머문 디자이너 비율은 68.2%로 나타남.
2006년 일반 회사 취업자 중, 2008년 전문 디자인 회사로 이직한 디자이너 비율은 72.0%, 계속 일반 회사에 머문 디자이너 비율은 28.0%로 일반 회사에서 전문 디자인 회사로의 이직 비율이 높았음.
- 2008년 전문 디자인 회사 취업자 중, 2010년 일반회사로 이직한 디자이너 비율은 13.3%, 계속 전문 디자인 회사에 머문 디자이너 비율은 86.7%로 나타남.
2008년 일반 회사 취업자 중, 2010년 전문 디자인 회사로 이직한 디자이너 비율은 66.3%, 계속 일반 회사에 머문 디자이너 비율은 33.3%였음.
- 2006년, 2008년, 2010년 추이 비교 결과,
일반회사에서 전문 디자인 회사로의 이직률이 매우 높았음.
반면,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일반회사로의 이직률은 낮은 수준이었고,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디자이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 질문지

디자이너 고용현황 조사

일정: 2010.4.20~2010.5.3

■ 조사 내용

▶ 안내문구

안녕하세요.

디자인 진흥원에서는 디자이너 취업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구직 디자인 분야에 대한 간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1분 정도로 매우 간단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 중 100분을 추첨하여 1만원 도서상품권을 드립니다.

▶ Screening Question

SQ. 귀하는 현재 디자이너로 고용되어 있거나, 과거 디자이너로 고용되어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조사종단

▶ 본 문항

문1. 귀하께서 구직을 원하는 디자인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미디어디자인
- ④ 환경디자인(인테리어,건축물,조경 포함)
- ⑤ 패션디자인(섬유,텍스타일)
- ⑥ 공예디자인
- ⑦ 기타디자인()

문1-1. 귀하의 디자이너 경력은 몇 년입니까? ___년

문2. 귀하께서 현재 또는 과거에 근무하신 디자인 분야는 무엇입니까?

근무한 디자인 분야가 다수라면 주요 분야부터 순서대로 세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미디어디자인
- ④ 환경디자인(인테리어,건축물,조경 포함)
- ⑤ 패션디자인(섬유,텍스타일)
- ⑥ 공예디자인
- ⑦ 기타디자인()

문3. 귀하의 현재 고용상태를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 문3-1로
- ②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 문3-1로
- ③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 ④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 문3-1로
- ⑤ 디자이너 외 업무에 종사 → 문3-1로
- ⑥ 학생
- ⑦ 무직/취업 준비 중
- ⑧ 기타()

문3-1. 현재 고용되어 계신(또는 업체 대표인) 회사는

전문디자인 회사입니까? 전문디자인 회사 외 일반 회사입니까?

- ① 전문디자인 회사
- ② 전문디자인 회사 외 일반 회사

■ 다음은 귀하의 2006년, 2008년의 고용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귀하의 2008년(2008.12.31 기준) 고용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 문4-1로
- ②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 문4-1로
- ③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 ④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 문4-1로
- ⑤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 문4-1로
- ⑥ 학생
- ⑦ 무직/취업 준비 중
- ⑧ 기타()

문4-1. 2008년(2008.12.31 기준)에 고용되어 있었던(또는 업체 대표였던) 회사는

전문디자인 회사였습니까? 전문디자인 회사 외 일반 회사였습니까?

- ① 전문디자인 회사
- ② 전문디자인 회사 외 일반 회사

문5. 귀하의 2006년(2006.12.31 기준) 고용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 문5-1로
- ②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고용된 상태 → 문5-1로
- ③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 ④ 디자인 관련 업체대표, 사장 → 문5-1로
- ⑤ 디자이너 외 직업에 종사 → 문5-1로
- ⑥ 학생
- ⑦ 무직/취업 준비 중
- ⑧ 기타()

문5-1. 2006년(2006.12.31 기준)에 고용되어 있었던(또는 업체 대표였던) 회사는

전문디자인 회사였습니까? 전문디자인 회사 외 일반 회사였습니까?

- ① 전문디자인 회사
- ② 전문디자인 회사 외 일반 회사